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1	지금여기꺼여있기	법륜	정토	6	백일법문 세트 (전3권)
2	인생수업	법륜	휴	7	승안경을 읽는 즐거움
3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4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9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5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10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화두와 한시에 담은 삶의 지혜

잠시라도 내려놓아라

뤼위밍 지음 | 나진희 옮김 | 글담 펴냄 | 1만 3800원



#1 <오동회원>에 따르면 유원율사(律師, 스님 중 법에 정통한 이들을 일컬어 율사라 함)가 대주선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수행할 때 열심히 하십니까?”

대주선사가 아래와 같이 대답하며 둘 사이에 대화는 이어졌다.

“열심히 하지”
 “어떻게 열심히 하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지 않고 온갖 것들을 바라고, 잠을 잘 때도 잠을 자지 않고 온갖 생각을 꾸민다. 그래서 갖지 않다.” <내려놓음 하나-자신을 지혜롭게 지키는 힘 평상심>중에서

#2 선종의 해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파는 경전에 의해 교의를 전수하고 그것을 곧 가르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종은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내려놓음 여섯-깨달음에 이르는 길>중에서

부단대학 증문과 뤼위밍 교수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선종 스님들의 화두와 한시를 접목했다. 바쁜 일상과 목표에 쫓겨 정작 챙겨야 할 것을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한다. ‘시와 철학은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해 친숙한 세계를 낯설게 하는 인문학의 본령에 충실하다’는 이상복 시인의 말처럼 한시와 선종의 화두는 가장 짧은 단어로 찰나의 순간 깨달음을 주는 재료들이다. 이런 이유로 선종 스님들은 그들의 깨달음을 문자로 전달할 때 시를 쓰곤 했다.

뤼위밍 교수는 이 둘을 재료로 ‘일만 하고 사람은 되지 못해서야 쓰겠는가!’ ‘목표를 동쪽으로 놓고 서쪽으로 향하면 그것은 물러섬이다. 목표를 뒤집으면 바로 나아감이다.’ ‘움직이는 건 밧발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과 같은 절묘한 삶의 지혜를 전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바로 <잠시라도 내려놓아라>이다.

책을 읽다 보면 때로는 짧은 문장에 담긴 절묘한 진리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문장이 주는 긴 여운에 몰입해 긴장을 풀게 된다.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쓸쓸한 재미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선은 철학이고 종교다. 다만 선은 체험적 성격이 강하고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선은 공허하고 허망해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소박하고 단순명료하다. 시도 마찬가지다. 중국 고대시가 중에는 일상의 삶과 경험을 통해 선을 깨닫게 하는 걸작들이 꽤 있다.”고 소개한다.

뤼위밍 교수가 화두와 한시를 통해 전하는 인생의 깨달음은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깨달음에 이른 고승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밥 먹고 노동하고 잠을 자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일례로 심춘이라는 시는 한 비구니가 불기운을 찾아 온종일 산과 들을 헤매 뒤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활짝 핀 매화를 발견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마당에 핀 매화를 통해 비구니는 이미 불이 가까운 곳에 와 있었지만 정작 멀리서 찾으려 했음을 깨닫는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더 높은 목표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 책은 읽는 이들에게 일상과 평상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책을 읽고 나면 반복되는 일상과 늘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힘이다.

이 책에는 100여 수의 한시가 등장한다. 뤼위밍 교수가 중국 한시 중에서 인생의 깨달음이 담긴 작품을 엄선했다. 그 결과 도연명, 이백, 소풍파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혜능스님, 혜개스님 등 선종의 고승들이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시들을 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한시와 연관된 스님들의 화두와 시인들의 삶을 연결시켜 한시를 풀이해 시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한시 해석은 고려대 증문과 김준연 교수가 꼼꼼하게 감수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시의정취를 살렸다. 한편 한시 고유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본문에 등장하는 한시 중 암기하여 마음에 새기면 좋은 한시를 해석 없이 부록으로 담았다. 저자와 감수자의 해석과 별도로 자신만의 감상을 누리기에 좋은 기회다.

김주일 기자

스님들의 다도...우리나라 차 문화 시작과 끝

한국의 차문화 천년 7

송재소, 조창록, 이규필 옮김 | 들매개 펴냄 | 1만 8천원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세기 중반에 이미 차를 마셨다. 고려 시대에 궁중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불가의 승려 사이에서 차가 크게 유행했는데, 일반 서민의 기호식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 문화도 다소 위축됐지만, 궁중이나 민간의 의식용으로 여전히 차가 쓰였고, 사찰의 승려들이 차 문화의 맥을 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 초의 선사에 와서는 차 문화가 절정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시작부터 불가의 승려들과 함께했다. 이 책은 신라의 승려 교각으로부터 근현대의 승려 정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승려들의 차 문화를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해 살펴본다.

이 책은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한국의 차 문화 천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이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차 문화에 관한 문헌 기록을 집대성했다. 차시(茶詩)를 포함한 개인 문집의 자료,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 등의 관찬사료(官撰史料)와 <동문선> <임원경제지> <성호사설> 등의 별집류(別集類)를 비롯해 미발표된 고문헌 자료, 외국의 한국 차 문화 관련 자료까지 차에 관한 모든 문헌 자료를 망라했다.

이 책은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의 일곱 번째 권으로,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1천백여 년 동안 승려들이 기록한 차 문화 관련 글을 정리·번역한 것이다. 한국의 차 문화는 불교와 함께 성쇠를 같이했으며, 사찰은 그 맥을 잇는 장소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차를 연구한 모로오가(諸岡沓)와 이에이리(家入一雄)는 한국의 차 문화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민간 문화로 크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조선의 폐 때문이라고 말했다.

“좋은 물이 귀한 중국에서는 차가 국민 보건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필수품이었지만, 수질이 좋은 조선에서는 사정이 달랐

다. 이를테면 대동강 물도 평양 근방의 상류는 특히 깨끗해서 수돗물보다 훨씬 좋다. 세균 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차물에 알맞고 빨래에는 더욱 알맞았다. 조선인이 흰 옷을 즐겨 입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왕실에서 음용된 것을 제외하면 그 명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사찰에서 승려들이 향유한 차 문화였다.”라는 것이다. 차 문화를 향유한 승려들이 남긴 시문과 행적은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는 조선 후기(1, 2권), 삼국시대·고려(3권), 조선 초기(4권), 조선중기(5권), 근현대(6권)까지의 시대별 고찰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7권으로 ‘승려의 차 문화’를 따로 엮었다.

차문화 천년 시리즈 마지막 권

57명의 선지식 차문화 소개

조선 차문화... 초의 스님매 정점

이 책에 수록한 인물은 신라의 교각으로부터 고려의 의천, 조선의 기화, 보우, 휴정, 약관, 각안, 근대승정호 등 모두 57인에 이른다. 이중에서 고려의 승려로는 혜심과 충지, 조선의 승려로는 보우·각안·보정 등이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 보정은 80여 편의 차시(茶詩)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혜장(惠藏)과 의승(意衡: 법호 초의草叟)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함께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의 조선 후기 편(1, 2권)에 미리 수록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구도의 한 방법, 차(茶) 마시는 스님들

승려의 시나 계승(偈頌), 일화(逸話)를 보면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중국 당나라의 선승 조주(趙州)가 ‘끼다기’(喫茶去)라고 한 일화이다. 조주 선사는 늘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차 한잔 마시게”라고 했다 한다. 승려들은 차를 마시는 행위를 선(禪)의 한 방법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많은 승려들의 시에 차를 마시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 조주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초의(草叟)의 승린 무의자(無衣子) 혜심이 쓴 <차상>이라는 시를 보면, 목은 이색이 쓴 <솔부리 뽕>과 돌구멍엔 시원한 샘물 솟는다. 호

쾌한 방편을 얻기 어려워 조주의 선을 몸소 잡아 보노라 라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조주의 선 즉 ‘차’를 달여 마시노라고 하였다.

또 다른 고려의 승려 경한(景閑)의 시 <가장 중요한 의리>를 보면 조주 선사의 화두를 시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의리는 이글거리는 화로에 눈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가운데 차를 내오는 사람이 있다면/유나(維那)가 하릴 한 방법이란 내리 치겠는가?

그럼에도 차를 내오려는 사람이 있는가?/나오너라! 나오너라!

승려는 차 마시는 행위뿐 아니라 차나무를 경작하면서 그 속에서 불법의 묘를 깨달았다. 다음의 시가 그것이다.

차나무는 아무도 부른 사람 없건만/보살들이 찾아와서 산차(山茶)를 따네.

초목은 터럭 하나 움직이지 않지만/본체와 작용이 당당히 어긋나지 않네 <해근의 차를 따며>중에서 이처럼 구도의 한 방법으로서 차 문화는 불가에서 그 맥을 이어 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차 문화가 변변히 이어지고 있다.

불교 의식으로서의 차 문화

우리는 흔히 명절 아침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말한다. 국어사전에 ‘신세다례(新歲茶禮)’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새해에 지내는 차례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래 차례는 ‘다례’라고 읽는 게 맞다. 그렇다면 차례는 지금까지 갖가지 음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성대한 예식이 아닌, 어쩌면 차 한 잔 올리는 조촐한 예식이었는지 모르겠다. 조선 시대에 임금이 중국 사신을 대접하던 상(尙)을 다례상이라고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중국 사신이 들어왔을 때 모두 “행다례”(行茶禮)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조선 시대의 승려 각안의 시 <다가>(茶歌)를 보면, “공자의 사당에 잔을 올려 참신(參禪)하고, 석가의 법당에 정갈하게 공양하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불(儒佛)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차(茶)는 의식의 하나로써 중요한 지위를 차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승려 기화는 진산(珍山) 스님의 영전에 아래와 같은 계송을 지어 올렸다.

한 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고
 한 조각 마음은 한 잔의 차에 담겼네.
 부디 이차 한 잔 맛보소서
 맛보시면 무량의 즐거움 생길지니.

불가에서는 음력 3월 3일에 해당하는 삼진날에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린다. 삼국유사 경덕왕(景德王) 총담사 표훈대덕(忠談師表訓大德)에는 승려 총담(忠談)이 해마다 삼진날과 중구날(重九日, 음력 9월 9일)에 경주 남산 삼화릉(三花嶺)의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불교와 차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본인 모리 다메조(森島三, 1884~1962)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보림사, 다보사, 백양사, 송광사 등 전라도 지역 사찰에 다수의 차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백련사와 보림사에는 차밭이 남아 있다.

완성된 차의 품격, 초의 차각안의 시 중에 <초의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막객 곡유남
 퍼지지 않은 연록빛 찻잎을
 술에 살짝 튀어내어
 밑심에서 잘 말리네.
 촉백나무 틀로 모나거나 둥글게 찍어
 죽순 껍질로 포장하네.
 비같이 맑고 들지 않게 단단히 간수하니
 찻잔 가득 차 향기 감도네.

위 시는 초의 선사가 입적한 뒤 그가 만든 차를 간직해 두었다가 달여 마시며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초의차’는 튀고 말리고 포장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의 완성된 품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의 선사의 이름이 붙은 고유한 차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책 마지막 근현대의 승려 정호의 <옥보대 아래 다풍이 크게 무너지다>를 보면, 초의 선사의 <동다송>을 인용해 다풍(茶風)이 크게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조선의 차 문화는 ‘초의’에 와서 하나의 정점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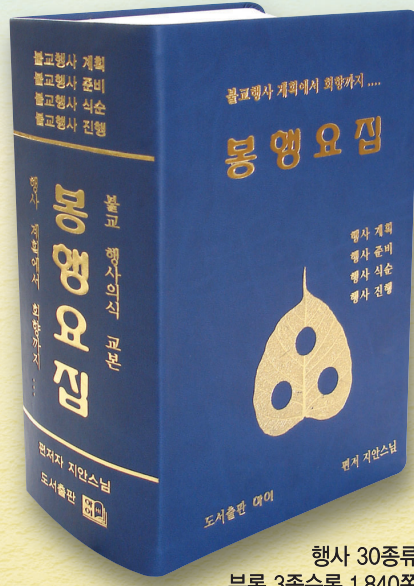
祈禱와 法供養으로 福지으세요!



봉행요집 법공양(法供養)

불교행사의 교본이 되는 봉행요집은 선만·출가·성도·열반·백중등의 명절과 수계·점안등 모든의식 봉행에 관하여 1계획, 2준비, 3식순, 4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되어 누구라도 불교의 어떤 행사를 계획에서 회향까지 준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동양역학 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드립니다.



불교행사의 지침서
봉행요집



불교기도의 모든 것
불교기도백과

기도에 꼭 필요한 책!
불교기도백과

서원을 꼭 이루는 기도법
 기도에는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기도는
 서원을 이룰수 없습니다.
 여기 올바른 기도법이 있습니다

- 1.일반예참 2.사경기도 3.염불기도
- 4.절배기도 5.진언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러의 법을 전하는 복덕이
 칠보의 보시복덕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